

野 “인사 참사”...靑 “어느때 보다 높은 기준”

새 정부 첫 운영위 전체회의...청와대 업무보고

임종석 비서실장 출석...야, 대국민보고대회 비판

국회 운영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청와대 업무보고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공격을 퍼부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가 “왜 인사참사가 발생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수석 출석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민주당 박흥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고 맞선 것이다.

이날 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이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보은과 코드 인사, 독선과 오만의 인사, 스스로 면제해 주는 인사, 다시 말해 보복 인사”라며 “이번 인사과정에서 지명 철회가 전혀 없다. 무오류라는 운동권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관련해 “누가 추천을 한 것이냐. 국민 여론이 나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인사는 어렵고 두려운 일이다.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는 5대 원칙에 대해 ‘버리’라고 말하는데, 반복

성이나 심각성, 후보자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보고대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일요일 밤 프레임 시간에 방송을 했다.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겠냐”라며 “방송 전파 낭비고 시청자에 대한 권리 침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부풀려진 여론조사를 믿은 오만과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공개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누구도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며 “청와대에서 권한이 없으면서 열람하고 사본을 만들어 (특검에)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문제를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조영천 의원은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올해 5월 8일까지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식약처가 계란 및 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뒤 연기됐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였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전 정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조사를 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양국의 외교·국방 라인, 그리고 안보보좌관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2일 광주 북구 망월동 5·18구묘역에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위르겐 힌츠페터의 추모비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대통령 외교 강행군

UN총회 등 내달부터 4개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올 하반기 치열한 정상회담 외교 일정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에 필요한 조직체계와 인사를 마무리하고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큰 틀의 정책과 임박 기조를 잡은 만큼 다음 달부터 석 달간 4개국을 도는 강행군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초연설을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도 한다. 러시아 방문에서는 북핵 해결 방안을 비롯해 가스·전력 등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북방경제 협력 비전을 알리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 18일부터는 닷새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 총회에 참석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확률이 높다.

11월 10일과 11일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하고 곧바로 필리핀으로 이동,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대선평가보고서’ 전대 변수 부상

백서 작업 마무리...安 부정평가 수위따라 책임론 불거피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가 지난 5·9 대선’의 패배 원인을 성찰하는 백서 작업을 마무리, 2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막판 당권 경쟁 구도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백서에 어느 수준까지 명시되느냐에 따라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대선평가위는 지난 주말 보고서 작성을 마쳤고 23일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비대위는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일단, 백서에는 대선 후보였던 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당의 체계적 시스템 미비 등이 주로 지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평가위는 지난달 1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전략의 성공은 유력 경쟁 후보였던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혼비·무능에 힘입은 것”이라는 등 신랄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서에 안 전 대표의 과오와 책임론이 다시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은 8·27 전대의 중대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를 비롯해 대선 당시 상임선대본부장이자 대표였던 박지원 전 대표가 평가위의 면직 요청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과연 평가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백서에서 후보 부분 평가가 좀 부실한 것 같

다”며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미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평가위의 백서 공개가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전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동영·전정배 후보 측에서는 16~18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대선 백서가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공개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철수 전 대표를 고려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도 받지 않고, 평가 면직도 거부한 대선 후보가 다시 당을 살리겠다고 당권 도전에 나서는데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당에 변화가 필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류영진 식약처장 경질론 고조

‘계란 파문’ 대처 미숙...야 “업무 파악도 못해” 공세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위원들이 “류영진 식약처장 취임초부터 ‘살충제 계란’ 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야당 의원 일부는 야당의 사퇴공세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어제 이날

연 국무총리는 류 식약처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이 자리에서까지 업무 파악을 못 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류 식약처장은 “지난 15일부터 식약처 전 직원이 사대 수습을 위해 충실히 업무 수행을 해왔다. 오라가라한다고 하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항

변했다가 되레 면박만 당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류 식약처장이 국민의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으면서도 답변 태도가 정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궁지에 몰린 류 식약처장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대신 경고장을 날리면서 야당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유통 단계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곳이 몇 군데인가”라는 물음에 류 식약처장이 즉시 대답하지 못하자 “아직도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h3>부안 숙박시설(모텔)</h3>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3>수익성상가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용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용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부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3>영광주택</h3>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개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3>경매 교육</h3> <p>① 기초실전반</p> <p>▶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p> <p>② 실전투자반</p> <p>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p> <p>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p> <p>③ 프리특별반</p> <p>경매 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p> <p>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p>
-----------------------------------------------------------------------------------------------------------------------------------------------------------------------------------------------------------------------------------	-----------------------------------------------------------------------------------------------------------------------------------------------------------------------------------------------------------------------------------------------------------------------------------------------------------------------------------------------------------------------------------------------------------------------------------------------------------------------------------------------------------------------	----------------------------------------------------------------------------------------------------------------------------------------------------------------------------------------------------------	-----------------------------------------------------------------------------------------------------------------------------------------------------------------------------------------------------------------------------------------------------------